

韓國生藥報

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.

發行人 宋景太
編輯 金政坤
印刷 裴永斗
編輯局長 裴永斗

發行所
社團 韓國生藥協會
法人 <우편번호 130-062>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
☎ 967-8133, 969-6875
FAX: 965-0643

(每月 初日發行)

<協會指針>
農民所得 增大
生産輸出 增大
國民保健 向上

會長 訓
1. 最大의 봉사
1. 最大의 협동
1. 最大의 노력

(無料配布)
中央共販場
☎ 967-4984
☎ 965-9551

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

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...

국내산 새약규격화고시 철회마당

협회입장 관계부처에 촉구키로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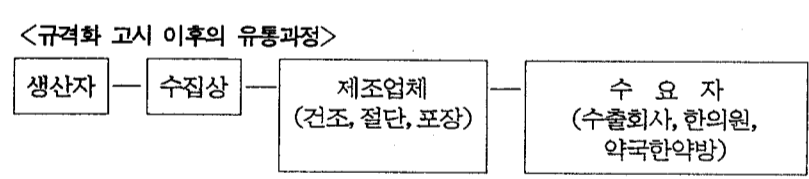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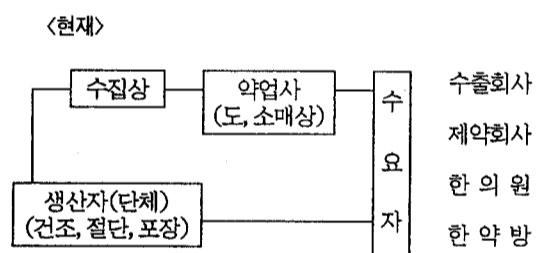
보사부 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과 대상 한약재 고시(안)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.

그동안 생산자와 소비자단체의 사투는 계속되어 왔으며, 본 협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, 정부는 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새약규격화고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.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(祝)

第10代 新任理事 就任

발 展

회장	장만명
부회장	송박배
총무	장문문
회수부	명상고
	영화규모걸구
	종연대형진인
	이임문정유향

1994년 4월 1일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

본 협회 입장에서 보면, 새약규격화고시 제 1994-11호에 의거한 규정은,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세척·건조·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은 농산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.